

새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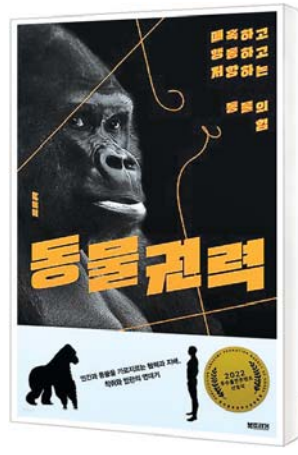
인간과 동물의 관계와 삶 재구성

▶ **흡연 여성 잔혹사**(서명숙 지음)= '영초언니'의 작가, 제주올레길을 낸 여자 서명숙의 연애태담. 이 책은 27년간 담배 없이는 한시도 못 살았던 골초 여성이 한국에서 흡연하며 보고 겪고 듣고 당하고 '해던' 일들에 대한 자서이다. 담배는 백해무익 나쁜 것인데, 그 담배를 피우는 '여자'는 더 나쁘다는 굴레를 가뭇히 씌워놓는 세상에 맞서 오기와 끈기로 취재하고 탐구한 '담배와 여성'에 대한 성실한 르포이기도 하다. 이야기장수. 1만7000원.



▶ **남종영의 '동물권력'**  
동물의 능동적 삶 주목  
"인간 문명의 조연 아니"

물이다. 저자는 동물은 우리에게 유무형의 영향력을 행사한다고 강조한다. 때로는 인간과 협력하고 인간의 역사에 개입하기도 하며, 세계를 구성하는 주제로 참여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언제든 파업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노동자에게 권력이 있듯이, 탈출하고 공격하고 파업할 수 있기 때문에 동물에게 권력이 있다"고 말한다. 책은 크게 5부로 구성됐다. 1부 '길들임과 지배 사이'에서는 동물이 인간과 동등한 위치에서 협력하며 지구의 역사를 써 내려온 모습을 촘촘히 복원한다. 2부 '동물정치의 개막'에서는 근대 이후 인간-동물의 관계를 다룬다. 여기서 저자는 동물이 기계와 달리 '살아 있음'과 '행동 가능성'을 무기로 인간에 맞서 저항해 왔기 때문에 동물에 대한 전일적 지배는 불가능하다고 주장한다. 3부 '동물 영웅 잔혹사'에선 동물 지배 체제 속에



서 떠오른 동물 영웅들의 이야기, 4부와 5부에서는 동물에게 덧씌워진 인간의 편견을 깨부수고 동물의 진짜 모습에 다가가지 하려는 학계와 사회운동 진영의 이야기를 펼쳐놓는다. 출판사는 "인간중심주의를 뛰어넘은 인간-동물 관계를 전망해보는 것으로 책은 마무리된다"며 "인간과 동물이 평등하게 관계 맺기 위해서는 기존의 동물권 운동 또한 돌아봐야 한다"고 전한다. 1만8500원. 오은지기자

'동물권력'(북트리거 펴냄)은 '동물이 인간 지배의 결과물'이라는 시각에서 벗어나 동물의 삶을 지구사적 관점에서 재구성한 책이다. 환경 논픽션 작가이자 언론인인 저자 남종영은 "동물이라 통칭되는 수많은 비인간동물의 눈높이에서 세상을 들여다보고 싶었다"고 했다. 그렇게 '매혹하고 행동하고 저항하는 동물의 힘'이란 부제를 달고 동물의 능동성에 주목해 인간-동물의 역사를 다시 쓴다.

책의 주인공은 바이러스 폭탄을 가지고 다녔던 원숭이, 군인 194명을 구한 통신병 비둘기, 임종을 예견한 고양이 등 나름의 의식과 판단을 하며 살아온 동

"특수교육, 우리 결의 보통의 일"

황현철의 '포코 아 포코'



제목 'poco a poco(포코 아 포코)'는 '조금씩 그리고 점점'이라는 뜻의 음악 용어에서 가져왔다. 저자인 황현철 특수교사는 조금씩, 점점, 다른 아이들보다 느리지만 멈추지 않고 소중한 하루 하루를 채워가는 학생들을 '특별한 보통 아이들'이라고 말한다.

특수교육에 대한 안내문이자 장애 학생들을 위한 호소문이기도 한 이 책은 위로와 격려의 편지이자 한 교사의 감동적인 고군분투이기도 하다. 실제 교실이나 집에서 일어났던 수많은 에피소드들이 때로는 유쾌하게, 때로는 무겁게, 마지막으로 감동적으로 마음을 두드린다.

저자는 공감과 응원을 당부한다. "그저 특수교육이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운영되고 있는 또 하나의 세계가 앞으로도 계속 잘 돌아가기를, 나아가 특수교육이 우리의 생활과 동떨어진 먼 곳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결 보통의 일임을 알아가기를 하는 바람"을 전한다.

책은 크게 3부로 구성됐다. 장애를 가진 아이들의 생활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본 기록을 1부 '특별한 보통 아이들'에, 다른 아이들과 조금 다른 이 아이들의 가족, 부모에 대한 이야기를 2부 '부모가 되다'에 담았다. 마지막 3부 '특수교사의 길'엔 특수교사로서의 삶을 묵었다. 한그루. 1만6000원. 오은지기자

▶ **태손땅**(문무병 지음)=태를 살라 묻은 섬땅을 위해 제주 신화, 역사, 문학을 넘나드는 삶의 기록. 제주의 뿌리와 그에서 뻗어난 제주 사람들의 삶을 신화로 문학으로 기록해온 문무병 작가의 신작 산문집이다. 책의 제목인 '태손땅'은 자신의 태를 태워 묻은 땅, 분향을 말한다. 태어난 곳이라는 고향의 의미를 넘어 정신의 뿌리를 뜻한다. 한그루. 1만5000원.



▶ **죽음의 대천사 생쥐스트**:프랑스 대혁명의 젊은 영웅(알프 코른골트 지음, 정진국 옮김)=프랑스대혁명이란 역사상 가장 위대했던 인류의 투쟁과 비극을 생쥐스트 한 사람의 생애를 통해 들려주는 보기 드문 책이다. 프랑스어판으로 먼저 출간된 뒤 유럽 각국에 번역본이 나왔다. 단집. 1만7000원.



▶ **레이디스**(퍼트리샤하이미스 지음, 김선형 옮김)=하이미스의 초기 심리소설 열여섯 편을 묶은 단편집이다. 그동안 하이미스가 쓴 수많은 단편집들은 언어권을 불문하고 여러 차례 출간됐지만, 그가 청년 시절에 쓴 심리소설들만을 모아 선보이는 기획은 이번이 처음이다. 북하우스. 1만6000원.



▶ **그 누구도 경험하지 못한 어떤 신세계**(사샤 맘착·마티나 포글 지음, 카트린슈탕글 그림, 김원근 옮김)=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의 실제 모습이 어떠한지 냉철하게 짚어보고, 과거로부터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이런 모습이 됐는지, 그리고 미래에는 어떻게 변해 갈 것인지를 정밀하게 톺아보고 진단한다. 라임. 1만6800원.



▶ **오줌 마려워요!**(강맹 그래픽 지음, 박재연 옮김)=곤란에 처한 어린이를 위해 온 마을 어른들이 힘을 합쳐 화장실 가기 대작전을 벌이는 이야기로, 온갖 방해를 뚫고 마침내 통쾌한 결말을 맞는 스타일 넘치는 그림책이다. 창비. 1만4800원. 조상윤기자



생태해설사의 눈으로 본 나무이야기

이성권의 '이야기로 만나는 제주의 나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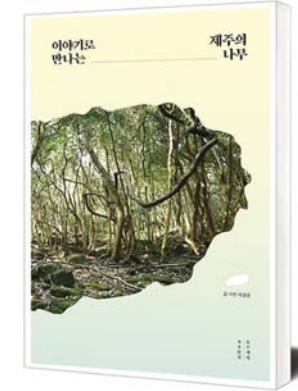
저자는 역사를 전공했지만 제주의 식물에 관심을 가진 이후 나무를 살펴보고 사진과 글로 기록하는 일을 15년 이상 쉼 없이 해 왔다. 그런 작업의 결과물을 책 '이야기로 만나는 제주의 나무'(북스책방 펴냄)로 엮었다.

책엔 생태해설사인 이성권 씨가 제주 전역을 돌며 만난 156종의 제주 나무 이야기가 담겼다. 나무의 줄기, 잎, 꽃, 열매 등 중요 생태적 특징을 정리한 정보도 있지만 이름의 유래, 옛이야기, 다양한 쓰임새 등 나무와 관련된 있는 제주의 문화와 생태 이야기가 곁들여져 흥미롭게 읽어 내려갈 수 있다.

그래서 저자는 식물 전문가라기보다 제주를 자주 찾고 제주도의 자연과 문화가 궁금한 일

반인들에게 일독을 권한다. 책은 크게 2부로 나뉘어 주제별 총 12장으로 구성됐다. 1부는 제주도의 지질적인 특징과 식물의 수직적인 분포를 고려해 도로, 한라산, 오름, 꽃자왈, 하천변, 바닷가 등 나무가 살아가는 장소별로 분류했다. 2부는 제주도에 와야만 볼 수 있는 나무를 중심으로 이야기가 있는 나무를 선정해 회귀나무, 노거수, 덩굴나무, 가시가 달린 나무, 도토리 가 열리는 나무, 산딸기 등 나무의 특성에 따라 구분했다.

제주도 마을의 수호신이자 쉼터 역할을 해 온 팽나무, 농기구가 되어 주기도 하고 먹거리로 내어 준 종가시나무나 구실 잣나무, 해안 마을에서 당목 역할을 해 온 우묵사스레피나무



나 보리밥나무 등. 출판사는 "길가, 마을, 한라산, 오름, 꽃자왈, 하천 변, 바닷가, 제주도 곳곳에 뿌리 내리고 생명을 이어가는 제주 나무들의 모습에는 그 나무에 기대어 살아온 제주 사람들의 삶이 새겨져 있다"며 "나무가 어떻게 뿌리 내린 곳의 사람들과 관계 맺었는지를 알면 그 장소의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고 소개한다. 3만원. 오은지기자

섬땅의 삶 일군 도구에 담긴 생활사

고광민의 '제주 도구'



서민 생활사 연구자인 고광민 씨가 300여 점의 도판과 함께 제주 도구를 망라했다. 2022년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학총서 발간사업의 지원을 받아 출간된 '제주 도구'다.

'섬땅의 삶을 일군 지혜'라는 부제가 달린 이 책엔 단순한 연장의 의미를 넘어 자연과 공동체와 함께했던 원조경제사회의 생활사를 충실히 담고 있다.

각 도구의 형태와 쓰임뿐만 아니라 제주만의 독특한 환경에 따른 지혜로운 생활사를 살피고 있다.

책은 총 6장으로 구성됐다. 제1장 '의생활과 도구'에선 쓰개와 모자, 옷, 바느질 도구와 빨래 도구, 신발, 비옷, 옷감 짜는 도구로 분류했고, 제2장 '식생활과 도구'에선 음식의 재료나 음식물 저장에 따른 도구, 취사 도구, 식기, 양조 도구, 담배에 따른 도구들을 담았다.

제3장은 주생활과 도구, 제4장은 생산·생업과 도구로 분류했다. 제5장에서 육상 운반 도구의 해상 운반 도구를, 제6장에서 계량 도구와 놀이 도구를 살폈다. 한그루. 2만2000원. 오은지기자 eioh@ihalla.com

**수축상**  
CONGRATULATIONS

<b>새마을훈장 자조장</b>	<b>새마을포장</b>	<b>대통령표창</b>	<b>국무총리표창</b>	<b>행정안전부장관 표창</b>
 <b>전문수</b> (주)삼익 대표	 <b>김혜란</b> (새마을문고일도2동분회장)	 <b>김원호</b> (새마을지도자용담1동협의회장)	 <b>김희정</b> (구좌읍새마을부녀회장)	 <b>제주시새마을부녀회</b> (노인의날 기념 노인복지기여부문)
 <b>김현만</b> (새마을지도자일도1동협의회장)	 <b>김영남</b> (새마을지도자우도면협의회장)	 <b>변동현</b> (새마을지도자애월읍협의회장)	 <b>김금충</b> (새마을지도자추자면협의회장)	 <b>오철훈</b> (극동여객 부장)

**새마을중앙회장 표창**

<b>강길선</b> 외도동새마을부녀회장	<b>김갑생</b> 이호동새마을부녀회장	<b>고인숙</b> 이도2동새마을부녀회장
<b>변영순</b> 한경면새마을부녀회장	<b>홍기만</b> 새마을문고연동분회장	<b>이기훈</b> 제주시문고 과장

영예로운 수상을 진심으로 축하 드리며, 앞으로도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더욱 전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SMU 제주시새마을회 회장 박경호**

새마을지도자제주시협의회 회장 강봉기, 제주시새마을부녀회 회장 홍경애, 직·공장새마을운동제주시협의회 회장 안귀환  
새마을문고제주시지부 회장 오희부 외 새마을지도자 일동